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김영록(왼쪽부터), 강기정, 정준호, 주철현, 신정훈, 민형배, 이병훈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인 소병훈 의원(왼쪽에서 네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 전남광주특별시장 첫 격돌... 산업·경제비전 '7인7색'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첫번째 격돌의 장이 된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산업·경제 비전과 권역별 발전 구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온라인 합동연설회를 열고 후보별 홍보영상과 7분씩의 정견발표를 통해 국내 첫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 7인의 비전과 정책을 소개했다.

7명의 예비후보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 통합의 의미와 함께 40년 만에 다시 한 가족이 된 광주·전남, 전남·광주의 공동 번영 비전과 구상에 연설의 초점을 맞췄고 갈등 관리와 리더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영록 후보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2차전지 중심의 4개 권역 재편 구상안을 제시했고 특히 첨단 반도체 산업 혁신거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공언했다. 복지상향평준화도 강조했다.

초대 특별시장 예비후보 7명, 온라인 합동연설회 산업·경제 공동번영 비전, 지역발전 구상 등 제시

강기정 후보는 광주권은 AI·미래차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은 오랜 전라산업인 철강·화학산업 재구조화와 반도체, 서부권은 재생에너지·관광 중심으로 발전시켜 '300조원 경제권, 인구 500만 시대, 지역중심 생활권'을 제시했다.

정준호 후보는 "AI 대전환을 통해 영남을 앞서고 수도권에 도전하겠다"며 4년 20조원인 통합지원금을 5년 30조원으로 늘려 대도약의 마중물로 삼고 구체적 산업 설계보다는 대규모 기회론과 투자 확보론에 방점을 찍었다.

동부권 유일 주자인 주철현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수도와 AI 기반 첨단 산업벨트, 전기요금 차등제, 신소재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공항·항만·물류 혁신까지 포함한 산업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신정훈 후보는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와 문화수도 비전과 함께 '3궤3축, 7대 경제축 전략, AI 첨단산업축 등 중장기산업설계를 제안하고 보스턴·싱가포르 모델을 결합한 혁신도시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민형배 후보는 "20조원을 100년 종자돈으로 투자하되 80%는 기업 유치 인프라에 쓰겠다"고 약속했고 동부권은 신산업, 서부권은 에너지 전환, 중남권은 농생명·치유, 광주권은 AI·문화를 제시했다. '전남소의 봉쇄론'도 강조했다.

이병훈 후보도 반도체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핵심 거점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함께 AI, 반도체, 방산,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항공우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입장에서 눈길을 끌었다.

김영록 후보는 "좋은 행정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갈등

관리형 리더를 자처했고 강기정 후보는 "갈등과 난제를 피하지 않겠다"며 추진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정준호 후보는 갈등관리보다는 새로운 리더십과 세대 교체에 주안점을 뒀고 주철현 후보는 "광주 풀림과 놓여준 소외 우려를 제도와 재정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후보는 "설계형 리더십"에, 민형배 후보는 "시민주권 통합"에, 이병훈 후보는 "선장형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회에서는 '광주' '전남' '대통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통합'과 '갈등(조정)'이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조별토론회(17~18일), 예비경선(19~20일, 권리당원 100%), 권역별 심층 토론회(27~29일, 투표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를 거쳐 내달 3~5일 본경선(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내달 12~14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뉴스1

광주·전남 이주민 10명 중 6명 "차별 경험"

이주여성·노동자 137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직장 내 최대... 절반 이상 "문제 제기 못해"
"소용없을 것 같아" 35.9%... 언어장벽도 원인

최근 전남에서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인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 이주민 10명 중 6명은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다수는 차별을 겪고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차별 경험 61.4%...직장 내 가장 빈번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는 지난 2월21일부터 3월12일까지 광산구 이주민 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결혼이주여성·이주노동자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차별을 겪고도 절반 이상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차별을 겪었을 때 문제 제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56.2%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 지인에게 말했다'는 17.5%, '동포에게 말했다'는 16.1%였다.

이주민·노동·여성단체와 상담했다는 응답은 5.8%, 공공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35.9%로 가장 많았다. '언어 문제'는 19.8%, '방법을 몰라서'는 12.2%였다. '불이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도 9.9%로 나타났다.

◆부당한 업무지시...가장 폭력 경험도

조사 결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9%가 '가끔 있다'고 답했다. '자주 있다'는 13.9%, '매우 자주 있다' 6.6% 등 전체의 61.4%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겪은 장소로는 '직장'이 3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점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 26.3%, 주민센터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 11.7%, '가정' 3.6% 순이었다. '차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다.

실제 경험한 차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직장 내 무시·모욕적 발언'이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역량·외모를 이유로 한 비하' 39.3%, '고용·임금에서의 불이익' 37.5%, '행정기관·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질' 33.9% 순이었다.

이밖에 '결혼·출산 관련 편견적 질문' 14.3%, '가정·직장·학교 신체적 폭력' 7.1%, '성희롱·성폭력 피해' 3.6%로 파악됐다. /뉴스1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 경험 사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 31.7%, '외모나 국가를 이유로 차별·모욕을 당했다' 24.4%,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었다' 14.6%,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2.4% 순이었다.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46.3%는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는 12.2%,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4.9%였다.

이주노동 정책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차별 해소 중심의 정책 전환'과 '법률 자문·통역 등 현장 지원 체계 강화'가 각각 25.6%로 가장 많이 꼽혔다. (2면에 계속) /뉴스1

건물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정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유리창 드론 청소

발전소·설비 청소

공장 외벽 청소

태양광 패널 청소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대상 : 아파트(준공중/관리/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카페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발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을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시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대상 : 아파트(준공중/관리/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카페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발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을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시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유한드론솔루션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